

풍성한 보름달 기운 받아 'KIA·광주FC' 낭보 전하나

'투혼과 감동의 드라마'...한가위 연휴 불만한 스포츠

KIA, 빠르면 15일 축포...김도영 '40-40' 대기록 주목 광주FC, 17일 홈서 창단 첫 아시아정상 향한 힘찬 첫걸음

"추석 연휴에도 스포츠의 열기는 계속된다."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프로축구 광주FC의 투혼과 승흥민, 이강인 등 축구 태극전사들의 유럽리그 활약 등 국내외에서 펼쳐지는 감동의 드라마로 올해 한가위는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 경기장에서, 안방에서 즐기는 연휴 스포츠를 정리해본다.

〈편집자주〉

스플릿A 불씨 살리고 ACLE 첫승까지



광주FC는 13일 오후 7시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K리그 30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의 맞대결에서 반등을 노린다.

현재 6위 포항(승점 44)과 8위 제주(승점 35)와 치열한 순위 경쟁 중인 7위 광주(승점 37)는 포항을 상대로 파이널A를 향한 희망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한때 5위 FC서울과의 승점차가 2점 차이에 불과했지만, 현재 9점 차이가 날 정도로 부진을 보이는 광주로서는 포항전은 물리칠 수 없는 버팀목 승부다.

광주는 추석날인 17일 아시아축구 정상화를 향한 힘찬 첫 걸음을 내딛는다.

구단 역사상 첫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티켓을 거머쥔 광주는 1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J리그 전통 강호 요코하마 F.마리노스(일본)를 상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가와사키 프론타레(일본)-조호르 다룰탁집(말레이시아)-비셀 고베(일본)-상하이 선화(중국)-상하이 포트(중국)와 같은 아시아 무대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이어온 팀들과 연달아 격돌한다.

앞서 광주FC는 지난 5일 팬들과 함께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구단 첫 아시아 무대 선전을 기원하는 출정식을 진행했다.

이정호 광주FC 감독은 "광주FC와 선수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해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 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손흥민·이강인, 유럽리그 골사냥

유럽 축구 무대를 누비는 태극전사들의 활약도 이번 명절



손흥민이 지난 10일 열린 오만과의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서 득점한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와의 경기 후 광도규와 KIA 선수단이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ASIA! 광주FC ACLE 출정식

지난 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광주FC '2024-2025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출정식' 단체사진. <광주FC 제공>

을 풍성하게 한다.

손흥민(토트넘)은 오는 15일 오후 10시 아스널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4라운드 홈 경기를 준비한다.

지난 10일 오만과의 월드컵 예선 원정 경기에서 월드컵 스폰서 제약을 과시했다.

1골 2도움 활약으로 홍명보호 첫승을 견인한 손흥민이 시즌 첫 '북런던 데비'에서도 활약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15일 새벽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하 PSG)과 김민재(바이에른 뮌헨)도 리그 경기를 앞냈다.

이강인이 속한 PSG는 브레스트와 리그 4라운드 홈 경기를 치르며, 김민재가 뛰는 바이에른 뮌헨은 홀슈타인 길을 상대로 분데스리가 3라운드 원정에서 나선다.

모래판 김민재 개인 첫 추석장사 도전

명절에 빠질 수 없는 민족의 고유 종목 '위더스제약 2024 추석장사씨름대회'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동안 경남 고성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

남자부 경기는 14일 태백급(80kg 이하), 15일 소백급(72kg 이하), 16일 금강급(90kg 이하), 17일 한라급(105kg 이하), 18일 백두급(140kg 이하)이 차례로 치러진다.

여자부 매화급(60kg 이하), 국화급(70kg 이하), 무궁화급



2024 민속씨름 보은장사씨름대회에서 백두장사에 등극한 김민재가 황스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씨름협회 제공>

(80kg 이하)과 단체전 경기는 13일 개최된다.

'씨름의 꽃'으로 불리는 백두급에서는 올 시즌 벌써 네 차례 장사 트로피를 거머쥔 김민재(영암군민속씨름단)가 개인 첫 추석 장사를 노리는 가운데 장성우(MG새마을금고 씨름단)와 최성민(태안군청)이 대항마로 나서는 모양새다.

한라급에서는 박민교(용인특례시청), 오창록(MG새마을금고씨름단), 차민수(영암군민속씨름단)가 각축을 벌인다.

/주홍철기자·연합뉴스

최인태의 오늘의 운세 (음력 8월 11일)

전문역원 (062) 673-2427

<p>子 쥐띠: 작은 이익에 급급하다 큰 것을 잃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라.</p> <p>48년생: 힘든 일도 잘 처리되고 재운도 따르니 집안에 햇살이 비치는 하루다. 60년생: 자신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은 옳으나 지나치면 구설이 분분하다. 72년생: 밀접한 인간관계도 하루아침에 멀어지는 것이 사람 사는 모습이다. 84년생: 생각 없는 말 한마디가 화근이 돼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는 운세다. 96년생: 물입하는 것은 좋는데 다양하게 섭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08년생: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움직이는 건 위험하니 시기를 조율하라. ▶행운의수: 0.3 행운의색: 청록색</p>	<p>丑 소띠: 바람이 세찬 날은 바다에 나가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p> <p>49년생: 사방이 어둠으로 덮여있으나 내게 필요한 것들은 선명하게 보인다. 61년생: 시작은 가볍게 마무리는 깔끔하게 처리하라. 73년생: 눈앞에 펼쳐진 상황도 아닌데 예상만으로 낙심하는 것은 어리석다. 85년생: 생각의 깊고 얕음은 그 사람의 상황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97년생: 인정하는 것과 인정받는 것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하루다. 09년생: 외적인 요인이 다소 모자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높이 오른다. ▶행운의수: 2.9 행운의색: 민트색</p>	<p>寅 호랑이띠: 빈 강당이 요란하지만 흔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갈 길이 없다.</p> <p>50년생: 넓은 곳에서 바라보지 않고 협소한 장소에서 바라보니 답답한 모습이다. 62년생: 빛과 그림자의 차이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 74년생: 마음을 열고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많은 것을 얻는 날이다. 86년생: 이름 듣고 찾아오기만 반드시 실패하니 유령형자를 찾아올까봐. 98년생: 질책거리지 말고 가볍게 일어서는 것이 보기에 좋다. 10년생: 웃자고 하는 말이 친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행운의수: 1.5 행운의색: 보라색</p>	<p>卯 토끼띠: 이런저런 준비로 바쁘지만, 밖으로 나가는 건 좋지 않다.</p> <p>51년생: 결정된 사항이 아닌 일을 일부터 서서 고민하니 건강해지기 쉽다. 63년생: 옳다고 생각한 일이라도 때로는 아닐 때가 있으니 이점 잊지 마라. 75년생: 망둥이가 뛰면 골부기도 날뛰니 마음을 다스리면서 때를 기다려라. 87년생: 시정확하게 걸을 수 있으나 하나의 과정이니 걱정할 것 없다. 99년생: 저조할 때가 있으면 상할 때도 있으니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라. 11년생: 긴장하면 잘하던 것도 실수하게 되니 마음을 편하게 먹고 긴장을 빨리 풀라. ▶행운의수: 0.6 행운의색: 주황색</p>
<p>辰 용띠: 빈 곳이 하나도 없는 것보다 약간의 빈틈이 보이는 것이 유익하다.</p> <p>52년생: 낮은 곳으로 일하라는 말을 생각하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는 시점이다. 64년생: 지나가는 바람에 연연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드넓게 바라보라. 76년생: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편안해진다. 88년생: 자신감으로 진취적인 행동이 동반되니 능력이 올라간다. 00년생: 사람은 많으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니 풍요로운 빈곤이다. 12년생: 과제가 많거나 적거나 그것을 따지지 말고 미래를 위해 해야 되는 단계라 생각하라. ▶행운의수: 5.6 행운의색: 회색</p>	<p>巳 뱀띠: 아니라는 생각이 깊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많은 것을 잃는다.</p> <p>41년생: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만 생각하고 그것으로 막을 내리자. 53년생: 합리적인 사고만이 자기 능력을 만인에게 여과없이 보여주는 법이다. 65년생: 밀어줄 때는 힘껏 밀어주고 아니면 아예 무시하는 것이 이득이다. 77년생: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 해도 후회는 없기 마련이니 대충 생각하라. 89년생: 진실은 왜곡되고 오해하기 쉬우나 시간이 가면 자연스레 밝혀진다. 01년생: 약속시간에 늦을 수 있으니 미리 출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행운의수: 4.8 행운의색: 갈색</p>	<p>午 말띠: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기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p> <p>42년생: 적당한 구실을 찾지 못하 지기 뜻을 설명하면 많은 이가 나를 따르다. 54년생: 대화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인식하는 하루지만 많은 것을 얻는다. 66년생: 경쟁하면 서로를 힘들게 만들고 시간만 낭비하는 모양새다. 78년생: 선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이 따라온다. 90년생: 그릇에 알맞은 양을 담아가지 넘치거나 모자라면 손실이 막대하다. 02년생: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것은 좋으나 우격다짐하는 것은 자제하라. ▶행운의수: 4.9 행운의색: 보라색</p>	<p>未 양띠: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서 서성거린다.</p> <p>43년생: 55년생: 집안일에 너무 신경쓰지 말고 활기있게 나만의 시간을 가질때이다. 67년생: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면 시대가 이미 지나갔다. 79년생: 버리는 것을 모두 얻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취하는 날이다. 91년생: 초심을 잃지 않는 건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이겨야 가능한 일이다. 03년생: 감각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고 실질적인 무엇인가부터 자세히 살펴라. ▶행운의수: 1.2 행운의색: 흰색</p>
<p>申 원숭이띠: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좋으나 시간이 길어지면 불안하다</p> <p>44년생: 풍족한 것을 미다하고 모자란 것을 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56년생: 유연한 모습으로 대처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 운세다. 68년생: 골짜기를 벗어나 평지에 이르니 마음에 담은 큰 뜻이 빛을 발한다. 80년생: 눈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시선이 머문다. 92년생: 적당한 높이에서 바라보면 시야도 넓어지고 담아두는 그릇도 크다. 04년생: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마음에 안정되지 않고 불안하다. ▶행운의수: 3.4 행운의색: 노란색</p>	<p>酉 닭띠: 기다림이 오래도록 지속되면 안 좋은 영향력에 찾아든다.</p> <p>45년생: 모든 일이 진행되고 손에 들어오는 것이 많아질 수 있다. 57년생: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때가체가 필요한 시기다. 69년생: 가까운 사람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한 후에 움직여야 편안하다. 81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에 대응하지만, 내력이 출중하니 힘든 것은 없다. 93년생: 가상의 일을 현실과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 자세를 잘 다듬자. 05년생: 우연한 기회에 조력자를 만나는 운세지만 눈에 들어올 지의문이다. ▶행운의수: 4.5 행운의색: 은색</p>	<p>戌 개띠: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깊이가 더한다면 바랄 것이 없다.</p> <p>46년생: 재물이 저절로 굴러올 가능성이 있으니 구경하면서 편하게 기다려라. 58년생: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밝히는 작업부터 선행하라. 70년생: 선하게 사는 것이 힘든 세상이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82년생: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를 때의 마음이 다른 건 아닐 수 없다. 94년생: 자신감을 느끼게 되니 나만 멀리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 주자. 06년생: 한편으로는 즐겁고 한편으로는 슬프니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날이다. ▶행운의수: 0.2 행운의색: 주황색</p>	<p>亥 돼지띠: 시시비비부터 가리지 말고 먼저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p> <p>35년생: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47년생: 무엇을 행하던 오늘도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으니 희망이 솟는다. 59년생: 기다린 막대기를 휘두르고 있으니 복이 오다가도 지만치 달아난다. 71년생: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솔직담백한 모습으로 다가서라. 83년생: 말없이 실천하는 자세를 갖추면 지지부진한 일이 서서히 움직인다. 95년생: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라도 남에게 피해가 된다면 다시 생각하라. ▶행운의수: 1.8 행운의색: 파란색</p>